



# 문화·예술로 기리는 '제주 4·3' 70주년 추모행사·서적·음반 다채

### 오늘 5·18광장서 추모문화제 지역시인들 기념 시선집 참여 70주년 추진위 추모음반 발표



제주4·3이 70주년을 맞았다. 봄이 일흔 번째 다너가는 동안 4·3의 진실은 차츰 선연해졌으나 여전히 완결 짓지 못한 이야기로 남아 있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 위로 등의 해결은 고사하고 아직 울바른 역사적 이름조차 얻지 못한 제주4·3. 항쟁이라고 해야 할까? 혹은 사태나 사건? 그것이 무엇이든 4·3은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4월 5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추모문화제가 펼쳐지는 가운데 시집과 그림책 발간, 음악회 등 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우선, 한국작가회의 소속 90명의 시인들이 기념 시 모음집 '검은 돌 숨비소리'(검은사람)를 펴내 눈길을 끈다.

특히 광주 전남지역 출신 시인들이 4·3 항쟁 70주년 시선집에 시를 실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작가회의 지회장 박관



박관서 시인 나중영 시인 김경윤 시인 김준태 시인

서 시인, 5월시 동인의 나중영 시인을 비롯해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의 김준태 시인, 담양 출신의 고재중 시인, 해남 출신의 김경윤 시인, 영광 출신의 박남준 시인 등이 참여해 시집에 힘을 보탰다.

이밖에 광주대 문학과 교수인 이은봉 시인, 5·18재단 상임이사 조진태 시인, 순천에서 활동 중인 석연경 시인 등도 자작시를 수록했다.

작품집 제목 '검은 돌 숨비소리'는 제주 지역을 상징하는 말이다. 석회암 지질 탓에 지천에 널린 검은 돌과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가쁜 숨소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된 지 오래다.

역사적 분기점에서 늘 목소리를 냈던 시인들은 5·18 정신과 제주 4·3 정신이 지역을 떠나 어떻게 연대하고 국가적 폭력에 저항하는가를 보여주지 위해 시를 썼다고 한다. 국가 폭력에 의해 무참히 인권을 짓밟히는 아픔을 경험한 터라 시인들은 시집을 매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김경윤 시인은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갈매기섬' 사람들의 목소리를 시에 담음으로써 집단학살의 또 다른 현장을 통해

제주 4·3과 연대하고 있다. 김경윤 시인의 전라도 사투리는 시집 속의 제주 사투리들과 어울려 분단된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낸다.

박남준 시인은 '잔인한 비문'이라는 시를 통해 4·3 희생자들의 무덤에 세워진 백비(희생자의 이름을 알 수 없어 세운 무명비)를 보여준다. 지독하고 잔인했던 학살의 흔적과 그것을 기억하려는 자들의 노력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관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제주 4·3과 광주 5·18은 정신이 연결된다. 지역의 인접성 외에도 국가 폭력에 의해 일반 민중의 진보적 가치, 인권적 가치가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동질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 60여 명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한국작가대회에도 참여한다. 작가대회에 지역 출신 문인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작가들이 동질의식을 갖고 가치에 대한 연대를 모색한다는 의미다. 문의 010-2790-9838.

또한 이번엔 1980년대 제주 4·3항쟁을

세상에 알린 이산하 시인의 시집 '한라산'(노마드북스)도 온라인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복간했다. 시인의 제자들이 꾸린 '이산하의 친구들'은 절판된 시집 '한라산'을 복간하기 위해 페이스북 펀딩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 활동을 벌였다.

시 '한라산'은 당시 필사된 종이봉투로 압하면서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과 함께 제주 4·3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2003년 시학사에서 출간됐으나 절판 상태였다. 제자들은 모금액으로 시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필화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도 할 계획이다.

어린이들과 함께 보면 좋을 그림책 '나무도장'과 '무명천 할머니'도 4·3 70주년을 맞아 발간됐다.

권운덕 작가가 글과 그림을 지은 '나무도장'(평화출판)은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정란희 작가의 '무명천 할머니'(스콜라)는 당시 마을에 탁진 토벌대의 무차별 총격에 탄을 맞은 진아영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가 모티브다. 평범한 소녀였던 할머니는 당시 부상으로 입과 턱을 다쳤고 평생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한편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민중가수 10팀과 손잡고 추모음반 '서울 민중가수들이 띄우는 노래'를 지난 달 30일 발표했다. 김성민, 류금진, 문진오, 손병위, 안석희, 연영석, 우리나라, 이선, 이수진, 임정숙이 목소리를 보탰다.

또한 연예기획사 락인코리야도 제주문화예술공동체와 함께 지난달 22일 프로젝트 앨범 '4·3을 묻는 너에게'를 발표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한 도시의 건축과 음식이야말로 여행의 진짜 동거이다."

지난 2017년 국내에서 발간된 제임스 설러의 산문집 '그때 그곳에서'의 한 구절이다. 작가는 모름지기 여행이란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 보게 하는 거울이라며 세계 각국의 도시와 건축물에 대해 소개했다.

필자가 이 문장에 꽂힌 건 작가와 비슷한 여행관을 갖고 있어서다. 소문난 관광지나 명소를 찾아 인증샷을 찍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도시의 미술관, 서점, 도서관, 시장을 구경하는 게 더 재미있다.

이우환 공간은 개관과 동시에 국내외 미술계 인사에서부터 유치원 어린이까지 하루 평균 수백 여명이 다녀가는 명소가 떠올랐다. 또한 전국 각 대학 건축학과 학생들의 투어 행렬도 끊이지 않는다. 부산 시립미술관은 이우환 공간의 작품을 잘 보존하기 위해 단체예약 대신 5~10명 단위로 관람을 허용하는 등 지역의 문화브랜드로 키우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는 어떨까. 유감스럽게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공공 건축물이 드물다. 지역

## 문화광주의 '건축학개론'

시립 미술관과 갤러리, 도서관은 문화관광의 핫플레이스다. 특히 미술관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미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지표라든가 점에서 색다른 여행을 꿈꾸는 관광객에게 반드시 둘러보아야 할 필수코스였다. 근래 문화애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미술관과 도서관, 서점을 답사하는 문화기행이 인기를 끄는 것도 그런 이유다.

지난해 11월 필자가 둘러본 부산의 '이우환 공간'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로서 손색이 없었다. 지난 2015년 개관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이우환 공간(연면적 1400㎡)은 검정색 유리로 전면부를 마감한 심플한 외관이 인상적이다. 말 그대로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

설계 당시 이 화백은 건축가와 함께 전시장 기본설계에서부터 전사물배치, 주변 경관과의 조화, 조명의 각도까지 세심하게 챙겼다고 한다. 하얀 벽으로 채워진 건물 내부의 미로처럼 되어 있어 세계적 거장의 예술세계와 공간의 의미를 되돌아 보게 한다.

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선 심의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별다른 기준 없이 일반 건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의 건축물 심의과정에서도 도시의 이미지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근래 신축을 앞둔 융복합 센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이나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시립도서관 역사지킴이 색다른 공공건축물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소중한 자원이다. 게다가 건물을 한번 짓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젠 건축심사의 단계에서 디자인, 조경 등을 꼼꼼히 따지는 광주만의 특색있는 '건축학개론'이 필요하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넬리 간차루크 로만 간차루크

## 우크라이나 부녀의 '콜라보'

### 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천원의 낭만' 공연

행복한 문화 충전 제 94회 공연에 넬리 간차루크와 로만 간차루크 부녀가 함께 등장한다.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행복한 문화 충전 천원의 낭만은 천원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로 진행되고 있다. 국악부터 클래식, 재즈, 인디밴드, 대중음악까지 친숙한 장르부터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공연들이 담겨 있다.

이번 공연을 꾸미는 딸 넬리 간차루크는 9살에 첫 독주회를 열었으며 현재 게리 게예프 칼리지에서 피아노, 성악 등을 전공하고 있다.

로만 간차루크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피아노 독주, 오보에와 피아노 협연으로 꾸며진다. 레퍼토리는 고릴리아카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녹턴', 마코야의 '당신은 나의 기쁨',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 '전주곡 32번', 신당의 '봄의 속삭임' 등이다. 전석 1000원. 문의 062-226-203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우크라이나 오보에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또 블라디카프카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로 활동해왔으며 현재는 게리 게예프 우첼리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공연은 피아노 독주, 오보에와 피아노 협연으로 꾸며진다.

레퍼토리는 고릴리아카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녹턴', 마코야의 '당신은 나의 기쁨',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 '전주곡 32번', 신당의 '봄의 속삭임' 등이다.

전석 1000원. 문의 062-226-203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임을 위한 행진곡' 9일 광주 시사회

오는 5월에 개봉하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사회를 통해 광주 관객들을 만난다.

(주)무당발레필름과 (주)알앤오엔터테인먼트는 오는 9일 오후 7시 광주 롯데시네마에서 출정식 겸 투자자 시사회를 연다고 밝혔다. 출정식은 스토리펀딩 투자자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를 제작한 박기복 감독을 비롯해 주연배우 김꽃비, 전수현, 김재희, 김효명, 한다영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영화 제작 당시 에피소드와 출연 소감 등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